

도, 현장 컨설팅감사로 적극행정 지원

사전 컨설팅감사 현장 상담창구서 신속한 해결방안 제시

전북특별자치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감사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2022년까지 매년 종합·특정감사 대상 5~6개 시·군에 대해 해당 기관 감사기간 중 3~4일 간 '사전 컨설팅감사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했지만, 2023년부터 자유로운 상담 분위기 조성 및 신속한 해결방안 제시 등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 운영했다.

그 결과, 3~5건(시·군별 1~2건)에 불과하던 현장 상담창구 신청이 51건(시·군별 3~4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현장에서 답변이 가능한 건은 구두로 즉시 답변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고충 민원 신속 해결에 큰 도움을 줬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올해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시·군 공무원의 해결이 어려운 업무는 물론 인·허가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인의 참여 확대를 유도해 도

민 불편을 중점적으로 해결하는 '사전 컨설팅감사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상담내용에 따라 간단한 사안은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그 외 현장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관련 법·제도, 현장 확인 등 면밀한 검토 후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현장 상담창구를 통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www.jonbuk.go.kr/audit/index.jonbuk) 정보마당/사전컨설팅감사/연혁 및 자료)에 게시된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서(별지 제2호서식)를 내려받아

인·허가등 대상 사업 개요 및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사유 등을 작성한 뒤 해당 인·허가를 담당하는 시·군 감사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김진철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은 "사전 컨설팅감사 현장 상담창구는 자유로운 상담을 통한 신속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다소 경직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확산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 발굴해 시·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도민의 어려움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생생장터 설맞이 할인행사

350여 개 품목 최대 45%까지 저렴

전북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전북생생장터는 2024년 용의해 설 명절을 맞이해 오는 2월 1일까지 다양하고 풍성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의 설 명절 부담을 덜어주고, 농축수산물 판로 확대 등을 위해 다양한 농수산물 할인 기획전을 마련했다.

이번 설 명절 기획전은 신선 농산물에서 축·수산물, 가공식품까지 350여 개의 다양한 상품들을 대상으로 기본 20% 할인쿠폰 지원과 입점사의 자체 10~25% 추가 할인 쿠폰을 포함해 최대 45%까지 할인 가능하며 1주문 당 1매 사용 가능하며 1인당 최대 3매, 2만원까

지 할인되며, 택배비는 무료이다.

또한, 설 명절 정을 나누기 위해 선물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대량주문 할인도 별도로 준비했다. 50만원 이상 구매 시 20% 할인으로 최대 30만원까지 할인 지원한다 하니, 기관·단체 등 직원선물로는 더 없이 좋을 듯하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전북생생장터에서 준비한 이번 설맞이 할인 기획전을 통해 최근 추운 날씨에 전북농산물 명절선물로 온정을 나누는 따뜻한 설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량주문 구매문의 등 자세한 사항은 전북생생장터(freshjb.com)와 고객센터(☎063-711-2182/2065)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 신청자 모집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에서 신규 어업인력 육성 및 어업인 부담 경감을 위한 2024년 수산기술보급사업(창업어가 멘토링,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사업은 신규 창업어업인과 수산 전문가를 1:1 매칭해 창업어업인에게 양식기술·노하우 등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어가의 신청자격은 어업인 후계자(선정된 지 3년 이내) 또는 귀어자(3년 이내인 자), 후계인은 수산신식인, 우수 경영인, 10년 이상 종사 어업인 등 신청이 가능하며, 지난해 창업어가 5명(군산 1, 고창 2, 부안 2)을 매칭하여 신규 창업어가가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은 배합사료 구매자금 용지에 따라 어가(법인)당 최대 3억원, 연 1%로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양식어업 면허·허가·신고 등을 필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인 또는 어업법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지난해 160개 양식어가를 21억6,500만원 사업비를 융자 지원해 사료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가의 부담을 덜어줬다.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사업의 신청기한은 오는 31일까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은 오는 2월 16일까지 해당 시·군을 관할하는 연구소에 방문 신청·접수하면 된다.

서재희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장은 "앞으로도 분야별 기술보급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수산업경쟁력 강화와 어업인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MOU 체결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MOU 체결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북자치도, 청년 임대보증금 미혼청년까지 확대

최대 2천만원, 최장 10년까지 무이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과 함께 무주택 미혼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확대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을 당초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신혼부부까지 확대한 데 이어,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선 8기 공약사업 변경을 통해 올해부터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2026년까지 도내 공공임대주택

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미혼청년 총 4,000가구 이상에게 임대보증금을 최대 10년간,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에는 745가구에 153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와 만 18~39세 미혼청년으로서, 시·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다.

지원기간은 최초 2년으로 2회 연장해 6년까지 가능하며, 1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추가해 8년까지, 2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4년을 연장해 최대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절차는 임대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전북개발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소재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해 자격여부 등을 심사·선정해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공고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김광수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임대보증금 확대 지원을 통해 미혼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든든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새롭고 특별한 주거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논타작물 재배농가에 15억 원 지원

전북자치도,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심어 쌀 적정 생산 유도

전북특별자치도는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생산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은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해 벼 재배면적 감축으로 쌀 과잉공급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대상 농지는 2023년 벼를 재배한 농지 중 2024년 신규로 타작물로 전환한 농지여야 하며,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한 후 2024년에도 계속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도 가능하다.

지원품목 및 단기는 다년생을 제외

한 일반작물, 녹비작물은 ha당 200만원이며 여기에는 휴경도 포함된다. 단, 하계조사료의 경우 정부 전략작물지원금 ha당 430만원 외 100만원을 추가 지급해 총 530만원이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오는 5월 31일까지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들의 재배 이행 여부를 확인 후 11월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총 1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일반작물 240ha, 하계조사료 890ha, 휴경 55ha 등 총 1,185ha에 15억원을 지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 2024년 가축재해보험 140억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각종 풍수해, 폭설, 폭염, 화재,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축산농가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140억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농가 실손 피해를 보상에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고 신속하게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농어업 재해보험법에 따라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비의 75%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해 축산농가 부담은 25%이다.

지원대상은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이 돼있고 소, 돼지, 말, 가금류 기타가축 등 50종 16개 축종이며 가축사육시설도 보상된다.

축종별 재해 및 질병 발생 시 주요 보장은 가입 금액 한도의 손해액에서 소 60~80%, 돼지 80~95%, 가금 60~95%, 사슴·양 80%, 꿀벌·토끼 95%이며 축사 100%를 보상에 준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